



백두대간 종주기 제3보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경북 대덕면과 무주 무풍면 경계면의 덕산재에서 김천 부항면과 영동 상촌면의 경계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이 있는 물한리 까지)

토요일 오후만 되면 등산준비로 우리집 거실은 온통 난리판이 되어 이사가는 집이 된다.

이제는 집사람과 애들도 면역이 생길 때도 되었던 만 "아빠는 백두대간 가는 주일만 되면 목요일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지, 산에 가는지 모르겠다"고 녀두리를 늘어 놓는다. 이젠 내가 도리어 그 소리에 면역이 되어서 이젠 노래소리로 들리고 내 마음은 벌써 산을 오르고 한다.

오늘은 처갓집에서 가져온 누령이를 사흘밤 낮으로 삶은 물에 야채를 넣고 끓인 개장국을 푹푹 얼려 아침식사시에 먹을 국으로 준비하고, 더운 날씨에 대비하여 물을 패트병 2개에 담아 배낭 무게 13.5kg를 채워서 토요일의 밤을 보내고 일요일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역으로 출정한다.

항상 고려관광버스 제1호차 17번 좌석이 내 자리이고 그 자리는 내가 불참시 빈 자리로 출발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다시 듣고, 사천왕 출석 점호 결과 역시 인천의 한(다문천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긴급 수색 결과 동대문운동장역 8번 출구를 오늘도 못찾아 헤메었다나 인천 촌놈.

겨울이 지난 가는 길목에서 오늘도 백두대간 종주팀을 태운 버스는 토요일 오후 11시를 뒤로하면서 종주 시작점인 덕산재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한다.

이구 대장님 왁 평지는 봄이나 이번 구간은 겨울이 아직 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겨울 장비 채비를 단단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두령까지는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인 물한리 계곡으로 하산 할 것을 선언하고 잠이 보약임을 강조하면서 기사님에게 소등을 부탁하신다.

새벽 4시! 30분간의 등반준비 명령을 하달받아 스패치차고, 스틱준비하고, 아이젠은 비상명령에 대비하여 금방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출발 구령과 함께 마루금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한다.

봄이 다가오는 소리에 가는 겨울이 귀를 간지럽힌다.

덕산재 고개마루의 쌍방울주유소 뒤 절개지로 올라 가면서 고지 점령은 시작된다.

그래도 아직까지 바람이 차갑고 군데 군데 잔설이 보이지만 이구대장님의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발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엄살에 속았다고 사천왕들은 궁시령 대면서 꾸역 꾸역 산마루를 향하여 올라간다.

행군 시작 1시간경 가이드의 긴박한 목소리, 선두 정지! 후발대가 삼천포로 빠졌다고 난리를 친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 15명 정도만 선두 그룹이 형성 되어 있고 뒤에서 따라 오던 곰벵이(?) 들은 지난 번에 왔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네. 어두운 새벽 길 꼬리표를 잘 보지 못하고 지나 치는 순간의 잘못된 전진이 30분 이상 엉뚱한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한다는 경험을 알려주는 순간이다.

전진을 계속하길 3시간. 빈속에서는 음식을 요구하고 다리는 자꾸만 힘이 빠지고 몸은 뒤로 쳐지면서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사천왕의 보스로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지친 몸을 쉬고 싶다는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고 아침 햇살은 산 나그네에게 양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듯 신비로운 기운을 품어 내고 있다.

어찌 어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기장이 있는 봉우리(1,030m)에 도착하니 지국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이 꿇여라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먼저 먹는다 하면서 나를 기다린다.

우선 최고급 휘발유인 인삼·대추술로 목을 축이고 버너를 설치하고 코펠에 냉동된 개장국을 넣고 신나게 불을 공급한다.

그 동안에 마신 아침 반주가 3잔, 오늘 따라 고급 휘발유를 많이들 가져왔네.

아침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니 앞 고지를 향한 길에 눈발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있다.

여기 까지 올라 올 때는 잔설이 위밍였을 하도록 하였고 이제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 간다는 신호를 느끼게 한다. 어찌 두려움이 스며드는 지겨운 눈발. 누가 눈이 깨끗해서 좋다고 하였는가! 어찌면 빙목에 드리워진 고드럼이 가는 겨울의 운치를 아쉬워 할 수 있게 하지 정말 눈은 지겹다.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등산장비를 다시 챙겨 고지를 향하여 사천왕이 전진한다.

그런데 어찌 이리 다리에 힘이 없노? 눈앞이 어쩔 어쩔 자꾸만 헛다리를 짚어 눈속에 다리는 파묻히고 땀은 이마를 타고 먼지 낀 눈발위를 뿌리면서 힘이 자꾸만 빠진다.

휘발유 공급 과잉으로 근육이 술에 취하였으니 어찌 다리에 힘이 있을까?

이제 산에 오면 휘발유 안 목을 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지만 그건 다음 일이고 당장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급하다. 주위를 둘러 보니 저만치 3명의 천왕은 짙짙거리면서 잘도 가는 데 왜 이리 나만 힘이 들까? 그래도 고지가 저기 있는 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중얼 거리면서 어거적 어거적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1.170m 뽕쪽봉을 정복한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저 만치 오늘의 고비길인 삼도봉이 보이고 천왕들

이 손짓하면서 빨리 오라고 난리다.

뽕쪽봉을 내려가니 갈림길 표시가 나온다. 여기는 안부, 오른쪽은 김천 해인동, 왼쪽은 무주 대불리 바로 가면 삼도봉이라 가리키네요.

삼도봉 가는 길은 정말 재미없다. 급경사에 잡풀만 있어 더욱 마지막 봉우리 정복을 힘들게 한다.

허걱 허걱 도착한 삼도봉(1,177m). 이구 대장님의 카메라 한 장 찍히고 주위를 보니 앞서간 천왕들은 정상주 마신다고 보스천왕이 온 줄도 모르고 히히덕거리고, 월간 산(조선일보 발간)에 백두대간 산행기와 그림을 기고하는 광원주 화백도 함께 계신다.

그때 증장천왕이 슬며시 다가와서 광화백에게 우리 사천왕에 대한 기사를 꼭 다음 산행기에 넣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촬영 한 컷.

삼도봉(1,177m) 정상엔 넓은 공터와 삼도화합의 비가 화강암으로 조성돼 있다. 이 삼도봉에서 왼쪽 10시 방향에 뽕쪽한 봉이 석기봉(1,200m. 혹은 식기봉)이고, 그 북쪽 봉이 민주지산(1,241.7m), 11시 방향에 보이는 산이 각호산(1,176m)이다.

삼도봉은 말 그대로 전북·경북·충북의 3개 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진입로도 셋이다. 북쪽 충청도 황간에서 물한계곡으로 오르는 길, 동쪽 경북 김천 해인동에서 오르는 길, 서쪽 무풍 대불리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대간은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대장님께 석기봉으로 돌아서 가면 안되냐고 하니까? 대장님께서 우리는 대간을 종주하는 것이지 산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기회를 보자고 하신다. 석기봉으로 가면 다음 대간 길이 끊어 지기 때문에 대간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하면서 말리신다. 할 수 있남 대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 엉덩이 미끄럼 타기 좋은 경사지를 내려선다.

삼마골재에서 물한리 계곡으로 내려 오는 길은 정말 경치가 좋다.

눈이 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소리는 흑한을 이겨낸 기쁨을 발산시키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늘은 4천왕을 소개합니다>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외호신(外護神). 우리 나라의 사찰에서는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의 천왕문(天王門)에 이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 보통 이 천왕상들은 불겨져 나온 부릅뜬 눈, 잔뜩 치켜올린 검은 눈썹, 크게 벌어진 빨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에 손에는 큼직한 칼 등을 들고, 발로는 마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 때 발 밑에 깔린 마귀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하는 상을 하고 있다.

원래 사천왕은 고대 인도 종교에서 숭상했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들은 수미산(須彌山) 중턱에서 각각 그들의 권속들과 살면서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키며 불법 수호와 사부대중의 보호를 맡게 되었다. 또, 사천왕과 그 부하 권속들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간의 선악을 늘 살핀다고 한다. 그리

고 그 결과를 매월 8일에는 사천왕의 사자(使者)들이, 14일 태자(太子)가, 15일 사천왕 자신이 제석천(帝釋天)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의 하나가 되고 있다.

사천왕 중 동쪽을 수호하는 이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이다. 그는 안민(安民)의 신으로서 수미산 동쪽 중턱의 황금타(黃金狎)에 있는 천궁(天宮)에서 살고 있다. 16선신(善神)의 하나이기도 한 지국천왕은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얼굴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쥐었고 오른손은 허리를 잡고 있거나 또는 보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그는 휘하에 팔부신중의 하나로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는 음악의 신 건달바(乾達婆)를 거느리고 있다.

서쪽을 방어하는 신은 수미산 중턱 백은타(白銀狎)에 살고 있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이다. 그는 흔히 잡어(雜語)·비호보(非好報)·악안(惡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의 남다른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그의 몸은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되어 있고 입을 크게 벌린 형상을 함으로써 웅변으로 온갖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고 한다. 또 눈을 크게 부릅뜸으로써 그 위엄으로 나쁜 것들을 몰아낸다고 하여 악안·광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목천왕의 근본 서원은 죄인에게 벌을 내려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道心)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모습은 붉은 관을 쓰고 갑

옷을 입었으며, 오른손은 팔꿈치를 세워 끝이 셋으로 갈라진 삼차극(三叉戟)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보탑을 받들어 쥐고 있다. 그의 권속으로는 용(龍)과 비사사(毘舍斤) 등이 있다.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수미산 남쪽의 유리타(瑠璃狎)에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위덕을 증가하여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구반다 등 무수한 귀신을 거느린 증장천왕은 온몸이 적옥색이며 노한 눈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의 모습은 대개 갑옷으로 무장하고 오른손은 용을 잡아 가슴 바로 아래에 대고 있고, 왼손에는 용의 여의주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달리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하여 다문이라고 한다. 그가 맡은 역할은 암흑계의 사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한때 불법에 귀의하여 광명신(光明神)이 되었으나, 본래 자신의 원을 지킨다 하여 금비라신(金毘羅神)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문천왕은 왼손에 늘 비파를 들고 있다. 그는 수미산의 북쪽 수정타(水精狎)에 살며, 그의 권속으로 야차와 나찰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이 사천왕은 천왕문에 많이 봉안되지만, 달리 불보살의 후불탱화에도 외호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